

대중어문 운동과 백화문 운동의 관계*

김상원**

◁ 목 차 ▷

- I. 들어가는 글
 - II. 대중어문과 백화문의 차별화와 관계 설정
 - 1. 대중어문 운동의 원칙과 입장
 - 2. 대중어문의 정체성 구축
 - III. 나오는 글
-

I. 들어가는 글

1934년 대중어문 운동¹⁾의 발단이 된 문언문 부흥 운동은 ‘新生活運動’과 같은 복고적인 문화사조에 편승해서 일어난 것이었다.²⁾ 하지만 문언문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여전히 문언문의 그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있는 구어와는 거리가 먼 5·4 이래 백화문의 한계 때문이기도 했

* 본 논문은 2013년도 2학기 한양여자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됨.

** 한양여자대학교 통상중국어과 부교수

- 1) 본고에서는 언어개혁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대중어 운동’라는 명칭 대신에 언어와 문자, 그리고 문체 개혁 문제를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대중어문 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拙稿, 〈대중어문 운동과 라틴화 신문자 방안〉, 《中國文學研究》第51輯, 韓國中文學會, 2013. 6. 112쪽 각주 1) 참조.
- 2) 1934년 2월 蔣介石은 南昌에서 〈新生活運動要義〉을 발표하면서 유교의 전통적 도덕가치인 ‘四維(禮義廉恥)’와 ‘八德(忠孝仁愛信義和平)’을 준칙으로 하는 ‘新生活運動’을 추진하고, 공자를 존경하고 경전을 읽을 것을 제창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복고적인 문화사조와 함께 문언부활 움직임이 더욱 강렬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당 교육부 관리였던 汪懋祖는 〈禁習文言與強令讀經〉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문언 부활을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吳研因이 〈駁小學參教文言中學讀孟子〉라는 글이 발표하여 왕무조의 문언 부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언과 백화의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다. 따라서 대중어문 운동은 한편으로는 문언문 부흥 운동을 반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언문 부흥 운동에 빌미를 제공한 5·4 백화문 운동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이중 임무를 안고 있었다.

한편 문언문 부흥과 복고 기도에 맞서기 위해 시작된 대중어문 운동은 표면적으로는 문언문이나 봉건 복고문화와의 질적 차별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문언문이나 봉건문화와의 차별화는 이미 5·4 백화문 운동 시절에 제기되고 시도된 바 있었으며, 거둔 성과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문언문 부흥과 봉건 복고 기도를 새로운 차원에서 제압하기 위해서 백화문이 아니라 대중어문이 나서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때문에 대중어문은 한편으로는 문언문이나 봉건 복고문화의 차별화와 함께 5·4 이래 백화문이나 부르주아 문화와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중어문이라는 것은 기존의 완성된 어문체계가 아니라 앞으로 건설해 나가야 할 어문체계였다. 따라서 대중어문 운동은 백화문 운동과 확연히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지향점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백화문과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 자신의 존립 기반과 추진 동력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대중어문 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5·4 백화문 운동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승할 것인지, 대중어문과 백화문의 차별성은 무엇이며,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양자를 병존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중어문으로 일원화시킬 것인가 등을 두고 논쟁이 전개되었다.

대중어문과 백화문의 관계 및 위상 설정과 관련된 논쟁은 주로 대중어문 운동의 원칙과 입장, 대중어문의 정체성 구축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본고는 이러한 양자의 관계와 위상 설정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당시의 논쟁 과정을 재구성하고 각각의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대중어문이 백화문과의 차별화를 통해 드러내 고자 했던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과 지향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대중어문과 백화문의 차별화와 관계 설정

1. 대중어문 운동의 원칙과 입장

1) 백화문의 지양과 비판

5·4 이래의 백화문은 문언문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대중들이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백화문이 소위 ‘新文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는 대중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원만하게 표출하고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식을 건강하고 자유롭게 성장시킬 수도 없었다. 이 때문에 대중어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언문뿐만 아니라 백화문도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1934년 6월 22일 대중어문 운동의 주요 진지 중의 하나였던 《申報·自由談》에 《申報·讀書問答》 편집자 명의로 〈怎樣建設大衆語文學〉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이 글은 대중들의 생활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대중어문은 대중들의 생활이나 언어와 격리된 백화문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백화문은 (.....중략) 지식인 계층만의 것으로서 한편으로는 관료사대부의 敎士語를 표본으로 삼은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래어를 무조건적으로 인용한 매판 언어로서 (.....중략) 대중들의 생활이나 언어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중략) 대중어문 운동은 문언문에 반대하는 것임과 동시에 관료적이고 매판적인 백화문에 반대하는 것이다.(.....중략) 또한 대중어문을 백화문에서 진일보한 것으로서 “백화문학의 허다한 결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대중어문을 제창하는 것”이라고만 여기는 陳子展의 인식도 한계가 있다. 그는 백화문은 대중어문의 전투 대상이며, 대중어문과 백화문은 문언문과 마찬가지로 대립적인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중략) 우리는 문언문에 반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洋八股도 더욱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³⁾

3) 《申報·讀書問答》編者, 〈怎樣建設大衆語文學〉, 《申報·自由談》, 1934년 6월 22일. 任重 編, 《文言, 白話, 大衆話論戰集》(民衆讀物出版社, 1934년판 영인), 《民國叢書》

이처럼 이들은 대중어문과 백화문을 대립적 관계로 규정하고, 관료적이고 매관적인 백화문을 문언문과 마찬가지로 반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23일 垢佛도 《申報·本埠增刊》에 발표한 〈文言和白話論戰宣言〉에서 문언문과 백화문, 백화문과 대중어문은 서로 대립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이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고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문언문과 백화문에 대한 토론이 하나의 대치 국면이고, 백화문과 대중어문에 대한 토론이 또 하나의 대치 국면이다. 쌍방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눈을 어지럽히고 말하기 어렵지 않도록, 두 문제를 구분해서 토론해야지 하나로 묶어서 논하면 안 된다. 이 두 문제가 정말로 연관성이 있다면 쌍방은 주장을 분명하게 진술해줄기 바란다. ‘대중어문’에는 반대하지만 ‘백화문’에는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거나, ‘문언문’뿐만 아니라 ‘백화문’도 반대의 대상에 속한다거나, ‘백화문’은 찬성하지만 ‘대중어문’은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각자의 주장을 분명하게 써서 해당 사안의 탐구와 연구용으로 제공해주기 바란다.⁴⁾

이러한 垢佛의 요구는 문언문과 백화문, 대중어문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백화문과 대중어문을 모두 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반(反) 문언문 투쟁에서 백화문과 대중어문의 연대 필요성과 백화문의 지양과 계승, 그리고 조정을 통한 대중어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垢佛의 요구에는 백화문과 대중어문의 대립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월 27일 夏丐尊은 《申報·自由談》에 〈先使白話文成話〉라는 글을 통해 5·4 이래의 백화문은 ‘말과 비슷할 뿐 ‘말이 되지 않는’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시 백화문을 제창한 사람들은 ‘明白如話’라는 구호를 표방하고 있었다. 정말

編輯委員會 編, 《民國叢書》第一編 52, 上海書店, 1989. 〈大眾語〉 12~13쪽.

4) 垢佛, 〈文言和白話論戰宣言〉, 《申報·本埠增刊》, 1934년 6월 23일. 文振庭 編, 《文藝大眾化問題討論資料》, 上海文藝出版社, 1987. 180쪽.

‘如話(말과 비슷)했을 뿐 ‘말 그 자체’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백화문은 결국 ‘말이 되지 않는’ 시시한 것이었다.(……중략) 백화문을 개선하고 대중과 교섭하게 하려면 먼저 그것을 말이 되게 해야 한다. 현재의 백화문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 어휘 사용은 최대한 대중이 사용하는 살아있는 말을 채용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방언을 흡수해야 한다.⁵⁾

즉 5·4 이래 백화문은 대중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대중어문의 지양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중어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명칭대 백화문이나 외국 어휘의 무분별한 수용이 아니라 대중들의 살아있는 말, 특히 절대 다수의 대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언을 최대한 채용하여 ‘말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28일에는 家爲가 《申報·本埠增刊》에 발표한 〈歷史固會重現嗎?〉라는 글을 통해 백화문이 5·4 시기 부르주아 지식인들의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것이라면 대중어문은 당시 대중들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려는 것이므로 서로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장과 언어는 사회의식의 표지로 사회의식의 발전에 따라 발전한다. 따라서 현 단계 사회의식의 필요에 따라 절대 5·4 시대의 역사를 반복하여 지식계급과 자산계급의 ‘洋八股’인 ‘백화문’으로 현 단계에 ‘고문부흥’을 주장하는 죽은 ‘문언문’과 대적하면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의식의 발전과 대중의 요구에 따라 대중어문을 건설하고 제창함으로써 죽어버린 ‘문언문’과 대결하는 동시에 ‘洋八股’인 ‘백화문’을 향해 진격해 나가야 한다.⁶⁾

즉 지식계급과 자산계급의 백화문으로는 달라진 사회의식과 대중들의 요구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어문은 백화문을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6월 28일에는 《申報·自由談》에 《申報·讀書問答》編者 명의의 〈再談建設大衆語文學〉가 발표되었다. 이 글은 6월 22일 〈怎樣建設大衆語文學〉에서 자신

5) 夏丏尊, 〈先使白話文成話〉, 《申報·自由談》, 1934년 6월 27일.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23~224쪽.

6) 家爲, 〈歷史固會重現嗎?〉, 《申報·本埠增刊》, 1934년 6월 28일. 文逸 編, 《語文論戰的現段階》(天馬書店, 1934년판 영인), 《民國叢書》編輯委員會 編, 《民國叢書》第一編 52, 上海書店, 1989. 55쪽에서 재인용.

들이 제기한 “대중어문과 백화문은 문언문과 마찬가지로 대립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백화문과 대중어문의 대립과 통일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백화문에 반대하는 것이 문언문에 반대하는 것과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없지 않다.”⁷⁾는 반성과 함께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과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담고 있었다.

대중어문이 백화문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까닭은 백화문 운동이 그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여 ‘언문일치’에 도달하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이미 ‘문언문’에 투항하는 위기에 들어섬으로써 언어문자의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유행하는 백화문은 藍靑官話가 아니면 변형된 팔고(소위 어록체)로 대중들과는 매우 큰 거리가 있다.(……중략)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백화문을 반대하는 것과 문언문을 반대하는 것이 같으므로, 문언문을 부정하는 것처럼 모든 백화문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⁸⁾

즉 문언문과 백화문은 모두 기본적으로 대중어문과 대립 관계이지만 문언문과는 적대적 대립 관계라면 백화문과는 대립과 통일 관계이므로 백화문을 문언문과 똑같이 반대하거나 백화문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백화문이 ‘언문일치’라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신문언’으로 변질됨으로써 중국어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5·4 백화문 운동 이래의 진보적 성과를 일률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대중어문이 백화문과 대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문언문을 한층 더 반대하고 대중들의 언어생활과 유리된 서사어를 개혁하여 언문일치를 완수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5·4 백화문 운동의 애초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백화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한층 더 문언문에 반대하고, ‘언문일치’의 승리 획득을 한층 더 보증하기 위함이다. 5·4 시기에 대중어문 운동은 백화문 운동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백화문을 반대함에 있어서 결코 전체 어문운동에서

7) 《申報·讀書問答》編者, 〈再談建設大衆語文學〉, 《申報·自由談》, 1934년 6월 28일.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20쪽.

8) 《申報·讀書問答》編者, 〈再談建設大衆語文學〉,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20~221쪽.

백화문이 이룩한 부분 ‘문언문’의 사망을 선포하고, 앞으로 언문일치의 필연성을 지적한 것-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중어문을 건설하는 현 단계에서 우리는 백화문이 대중을 벗어난 것에는 반대하지만, 백화문 가운데 대중어문에 가까운 일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백화문은 결국 문언문과 다르며, 대중어문과는 비교적 가까운 것이다.(……중략) 5·4시기 백화문의 탄생은 동시에 대중어문의 출발점이었다.(……중략) 우리가 만약 백화문 가운데 대중어문의 존재와 발전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곧 전체 언어운동, 심지어 문화운동의 의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⁹⁾

이러한 《申報·讀書問答》 편집진의 입장은 백화문을 전면적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것에서 선별적인 비판과 긍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문과 대중어문을 대립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기본 입장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2) 백화문의 비판적 계승

백화문 운동과 대중어문 운동의 제기 배경과 지향점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화문을 문언문과 동일시하거나 대중어문을 건설해 나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5·4 이래 백화문이 거둔 성과도 적지 않으며, 대중어문이 지향하는 진보적인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5·4 이래 백화문의 역사적 성과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문언문 부활 진영을 이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따라서 대중어문 진영에서는 5·4 이래 백화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분위기를 바로잡고 객관적인 평가와 계승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王剛은 6월 29일 《中華日報·動向》에 발표한 〈一支從斜刺裏射來的毒箭〉에서 “백화문과 대중어문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중어문은 백화문으로 문언문을 반대하는 전투 과정에서 발전해 나온 것이다. 대중어문은 백화문이 발전하고 진보한 것이다. 백화문과 문언문은 대립적이지만, 백화문과 대중어문은 하나의 동일선상에서 연대하고 있다.”¹⁰⁾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7월 1일 《中華日報·動

9) 《申報·讀書問答》編者, 〈再談建設大眾語文學〉, 文振庭 編, 《文藝大眾化問題討論資料》, 221쪽.

向)에 발표한 〈建設“大衆語”並不反對“白話文”〉에서는 垢佛의 〈文言和白話論戰宣言〉은 “복고 반대 운동인 ‘문언문’ 반대 전투 중에 ‘백화문’과 ‘대중어문’ 사이에 또 하나의 대치 국면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면서 “진정으로 복고 운동에 반대하는 진보 작가라면 몇몇 명사 앞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문장 높음을 하면 안 된다.”¹¹⁾고 비판했다.

‘백화문’과 ‘대중어문’은 《申報·讀書問答》란에 발표된 〈再談建設大衆語文學〉의 언급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대립시킬 수 없는 것이다. 실제의 반복고운동이라는 이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고 단지 ‘백화문’, ‘대중어문’이라는 몇몇 글자를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문장 높음을 하는 것이고 속으로는 복고운동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¹²⁾

또한 家爲가 〈歷史固會重現嗎?〉에서 대중어문은 “죽은 ‘문언문’과 대결하는 동시에 ‘洋八股’인 ‘백화문’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야 한다.”고 한 것 역시 垢佛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백화문과 대중어문의 진용을 혼란시키고, 양자 간의 적대적 대립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반복고운동과 반문언문 투쟁 중에 백화문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¹³⁾고 주장했다.

한편 司馬疵는 6월 30일 《中華日報·動向》에 〈不要上當〉를 발표했다. 그는 이 글에서 현재의 봉건세력들도 張恨水의 소설이나 수많은 彈詞와 小調, 連環畫의 설명들처럼 통속적인 ‘백화문’과 ‘대중어문’을 이용하여 대중들을 파고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봉건세력의 완고함과 필연적인 몰락만 보지 말고, 그들이 소리 없이 백화문과 대중어문을 활용하여 야기하는 악영향을 간파하여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¹⁴⁾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7월 2일 《中華日報·動向》에 발표한 〈內容與形式〉에서는 대중어문 운동은 ‘문언문’ 그 자체에

10) 王剛, 〈一支從斜刺裏射來的毒箭〉, 《中華日報·動向》, 1934년 6월 29일. 文逸 編, 《語文論戰的現段階》 54쪽에서 재인용.

11) 王剛, 〈建設“大衆語”並不反對“白話文”〉, 《中華日報·動向》, 1934년 7월 1일.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59~260쪽.

12) 王剛, 〈建設“大衆語”並不反對“白話文”〉,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60쪽.

13) 王剛, 〈建設“大衆語”並不反對“白話文”〉,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60쪽.

14) 司馬疵, 〈不要上當〉, 《中華日報·動向》, 1934년 6월 30일. 任重 編, 《文言, 白話, 大衆話論戰集》, 〈雜論〉 16쪽.

대한 비판보다는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배경과 의도, 즉 복고운동에 대한 반대 임무에 집중해야 하며, 이러한 복고 반대 임무를 철저하게 완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중어문’을 건설하고, ‘5·4’식 ‘백화문’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밖에 없다.”¹⁵⁾고 주장했다. 그리고 ‘백화문’을 어떻게 비판하고 바로잡을 것인가의 문제는 대중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家爲처럼 일괄 반대하는 것에 반대하며, 《申報·讀書問答》처럼 백화문과 대중어문을 기계적으로 대립시키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비록 당시에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타협했지만, ‘백화문’ 자체는 어느 정도 현대적이었다. 비록 그 형식이 서구화 티가 너무 짙고, ‘문언’이 약간 뒤섞여 있어서 대부분의 대중들과 유리되어 있지만, 학생·소시민과 같은 일부 대중들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여전히 그 영향 아래 있다. 게다가 형식이 비교적 정밀하고, 문법도 비교적 과학적이다. 《申報·讀書問答》에서 “대중어문이 성장해 나갈수록 관료 매판들의 백화문은 쇠락할 것이며, 그것의 반동성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그것의 반동성이 내용에 있지 형식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대중어문’은 목전의 대중의 요구에 의거하고, ‘백화문’이라는 기초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어문’은 절대로 ‘백화문’과 기계적으로 대립할 수도 없고, 대립해서도 안 된다.(……중략) 우리는 절대로 ‘백화문’을 공격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며, 이해하기 어렵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힘을 다해 비판적으로 시정하고 응용하는 수밖에 없다.¹⁶⁾

이처럼 王剛과 司馬疵는 대중어문과 백화문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괄적으로 반대하거나 기계적으로 대립시키면 안 되며, 대중어문이나 백화문이나 하는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것의 내용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백화문’과 ‘대중어문’은 《申報·讀書問答》란에 발표된 〈再談建設大衆語文學〉의 언급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대립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王剛의 비판이나 “《申報·讀書問答》처럼 경솔하게 백화문과 대중어문을 기계적으로 대립시키는 것”

15) 司馬疵, 〈內容與形式〉, 《中華日報·動向》, 1934년 7월 2일.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61쪽.

16) 司馬疵, 〈內容與形式〉,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63쪽.

에 반대한다는 司馬疵의 비판은 다소 논쟁의 소지가 있었다. 이를 《申報·讀書問答》 편집진이 양자의 관계를 여전히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도 있지만 《申報·讀書問答》이 이미 〈再談建設大衆語文學〉을 통해 〈怎樣建設大衆語文學〉에서의 ‘전면적인 지양’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대립과 통일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백화문과 대중어문의 형식을 빌어 복고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형식보다는 내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司馬疵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주의하느라 형식을 완전히 흘시해서, 소위 내용이라는 것을 신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목전의 대중어문 운동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5·4 이후 모든 어문운동의 발전과 성취까지 부정하는 것”¹⁷⁾일 수도 있었다. 더욱이 백화문의 “반동성은 내용에 있는 것이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는 주장은 “반동적인 내용은 그 형식의 ‘반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대중어문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태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¹⁸⁾는 점을 간과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어문이라는 새로운 어문 형식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환경이나 백화문의 각종 형식적 퇴행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간과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司馬疵의 주장은 논쟁의 소지가 많았다.

사실 王剛과 司馬疵의 주장은 백화문에 대한 전면적 계승이 아니라 비판적 계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만 전면적 지양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5·4 이래 백화문의 성과를 상대적으로 더 부각시켰을 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王剛과 司馬疵가 단순히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家爲나 《申報·讀書問答》編者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논쟁을 유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쌍방의 오해와 오독으로 인해 감정적 대립이 발생하면서 논쟁이 갈수록 격화되었던 것이다.

한편 대중어문과 백화문의 관계와 위상 정립에 관한 각자의 원칙과 입장을 둘러

17) 《申報·讀書問答》編者, 〈爲大衆語問題答司馬疵先生〉, 1934년 7월 6~7일. 任重編, 《文言, 白話, 大衆話論戰集》, 〈大衆語〉 117~118쪽.

18) 霓璫, 〈爲“大衆語問題批評”-致司馬疵王剛及其他白話改良主義者們〉, 《大晚報·火炬》, 1934년 7월 18일. 文振庭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69쪽 참조.

싼 대립은 논의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대중어문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5·4 이래의 백화문이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거둔 진보적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계승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중어문과 백화문은 '대립과 통일'의 관계 속에서 '지양과 조정'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논의 구도도 대중어문은 백화문을 지양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승해야 하는지와 같은 원칙과 입장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무엇을 왜 지양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계승해야 하는지'의 형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2. 대중어문의 정체성 구축

1) 백화문과 대립 : 주체와 계급성

백화문과 대중어문의 관계와 위상 설정을 둘러싼 논쟁은 원칙과 입장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사용 주체와 계급성 문제로까지 확장되었다. 若生은 7월 4일 〈建設大衆語文應有的認識〉이라는 글에서 5·4 이래의 백화문은 신흥 자산계급이 민주주의와 반봉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지만 추진 세력의 계급적 한계로 인해 문체 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중들과 연계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봉건세력이 부흥을 기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다고 비판했다.¹⁹⁾

7월 5일 任白戈는 《新語林》創刊號에 발표한 〈“大衆語”的建設問題〉에서 역대로 중국의 대중들은 어문 제도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어문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의 언어는 줄곧 대중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오래된 문언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차례 혁명을 겪은 백화문 역시 지금은 대중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래 전에 소위 '신문언'이 되어 버렸다. 지금의 대중은 자신의 언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중어문'이라는 명사가 제기되고 문제가 된 것이다.²⁰⁾

19) 若生, 〈建設大衆語文應有的認識〉, 《申報·本埠增刊》, 1934년 7월 4일. 任重 編, 《文言, 白話, 大衆話論戰集》, 〈大衆語〉 84~85쪽 참조.

20) 任白戈, 〈“大衆語”的建設問題〉, 《新語林》創刊號, 1934년 7월 5일.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31쪽.

家爲도 7월 8일 《大晚報·火炬》에 〈關於批判與認識-答稻子先生〉라는 글을 통해 5·4 이래의 백화문은 상층 계급의 전유물로서 진보적 역할을 포기하고 문언문 부활 시도에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그것을 철저히 개혁하고 대중들을 위한 대중어문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4 이래의 백화문은 상층 자산계급과 일반 지식계급의 소유물일 뿐이다. 게다가 그것은 그렇게 한 순간에 중단되어 버리고 심지어는 일찌감치 타협과 투항의 길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결코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서구화 분위기와 팔고 분위기로 가득한 '매관문장'을 만들어 냈다. 바로 이 때문에 특수계급의 통제와 정책, 그리고 봉건 잔재들의 미쳐 날뛰는 복고운동이 빠르게 만연되고 전파될 때 이미 강시가 되어버린 문언문임에도 이를 틈타 부활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대중을 위해 대중어문을 건설해서 이러한 새로운 팔고문에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대중들이 근본적으로 알 수 없고 불필요한 서구화 분위기와 팔고 분위기를 모두 폐기해서 그것의 내용과 형식을 철저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²¹⁾

이러한 若生과 任白戈, 家爲의 주장은 결국 백화문은 부르주아 자산계급과 지식계급의 어문이지만 대중어문은 무산계급 대중의 어문이기 때문에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백화문과 대중어문의 차별성은 형식과 내용으로부터 구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용 주체와 계급성에서 구현되는 것이므로 대중어문은 백화문과 명확한 차별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들의 주장에 대해 司馬疵는 먼저 대중어문이 건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화문은 여전히 유용한 형식이므로 결코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론을 제기했다.

대중어문이 아직 진정한 기초를 건립하지 못한 시점에는 '보조'의 의미에서나, 사회적 형식의 다양한 역할에 있어서나 백화문은 결코 폐기할 수 없으며 서둘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²²⁾

21) 家爲, 〈關於批判與認識-答稻子先生〉, 《大晚報·火炬》, 1934년 7월 8일. 文逸 編, 《語文論戰的現段階》 69쪽에서 재인용.

22) 司馬疵, 〈爲大衆語問題批評答讀書問答暨覽璐先生〉, 《大晚報·火炬》, 1934년 7월 10일. 文逸 編, 《語文論戰的現段階》 66쪽에서 재인용.

특히 王剛은 7월 12일 〈再論建設大衆語並不反對白話文〉을 통해 당면한 시대적 과제가 비록 5·4 시기와는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반제반봉건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백화문은 여전히 일정 정도의 진보성을 갖고 있으며, 상층 계급의 일부가 봉건세력과 제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화문이 완전히 변질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나아가 대중어문 운동은 대중들을 위해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진보적 지식인과 소시민들로 하여금 대중들과 연대하여 대중어문 건설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며, 아직 대중어문이 건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적 지식인과 소시민들이 대중들과 소통을 시도할 때는 여전히 백화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당면한 반제반봉건 투쟁에서 진보적 대중뿐만 아니라 진보적 지식인과 소시민의 비중과 역할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백화문’이라는 유력한 형식을 절대로 반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²³⁾

高荒도 7월 15일 《中華日報·星期專論》에 발표한 〈由反對文言文到建設大衆語〉에서 백화문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대중들의 어문 생활과 통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대중적인 작가들의 실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화문은 매관자산계급과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중과 통하는 부분도 있다. 형식에 있어서 백화문의 기본 어휘, 어법은 노동대중들의 구어의 기초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백화문은 현재 적지 않은 진보적인 작품을 창조했으며, 이론 번역문의 유일한 도구이다. 우리는 대중들의 생활 수요와 결합하고 있는 백화문을 버릴 수 없다. 대중 속의 작가들은 일찍이 백화문 중에서 대중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부분은 향상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거하면서 실천 속에서 백화문을 ‘지양해왔다.’²⁴⁾

이에 대해 霓璐는 7월 18일 《大晚報·火炬》에 발표한 〈爲“大衆語問題批評”-致司馬疵王剛及其他白話改良主義者們〉을 통해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백화문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문언문과 백화문에 대한 계급의식 투쟁을

23) 王剛, 〈再論建設大衆語並不反對白話文〉, 《中華日報·動向》, 1934년 7월 12일. 文逸 編, 《語文論戰的現段階》 64쪽 참조.

24) 高荒, 〈由反對文言文到建設大衆語〉, 《中華日報·星期專論》, 1934년 7월 15일.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76쪽.

방기할 수 없다.”²⁵⁾고 반박했다. 그리고 若生은 7월 19일과 20일 〈爲建設大衆語文的問題〉라는 글을 통해 5·4 시기와 달리 반제반봉건 운동의 핵심 주체가 신흥 자산계급이 아니라 대중들이기 때문에 운동의 전위도 백화문이 아니라 대중어문이 담당해야 한다²⁶⁾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若生은 백화문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아니라 선별적인 부정과 계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백화문이 전적으로 관료 매판의식을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하려는 것은 관료 매판 의식을 대표하는 백화문들이다. 그것이 5·4 시기의 공적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중략) 우리의 대중어문 건설은 백화문의 신선하고 진보적인 부분을 비판적으로 흡수하고 진부하고 낡은 것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²⁷⁾

이처럼 백화문과 대중어문의 주체와 계급성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의견 접근을 이루기 어려웠다. 대중어문의 주체는 지식인이나 소시민이 아니라 대중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5·4 백화문이 대표하는 자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당연히 대중어문이 지향하는 무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대체되어야만 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은 그것을 구현해 나갈 대중어문이 아직 건설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데 있었다. 더욱이 5·4 이래 백화문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대중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향상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거하면서 스스로를 제고시켜왔다. 특히 그것은 자산계급의 사회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무산계급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전파하는 유력한 도구로 기능해왔다. 따라서 魯迅이 〈門外文談〉에서 밝힌 것처럼 백화문이 대중과는 전혀 상관없는 매판 자산계급의 글이라고 매도하며 5·4 이래의 성과마저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다.²⁸⁾ 이 때문에 백화문과 대중어문의 주체와 계급성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대중어문이 아직 건설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5·4 이래의 백화문의 진보적

25) 霓璫, 〈爲“大衆語問題批評”-致司馬疵王剛及其他白話改良主義者們〉,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69쪽.

26) 若生, 〈爲建設“大衆語文”的問題〉, 《中華日報·動向》, 1934년 7월 19~20일. 文逸 編, 《語文論戰的現段階》 68쪽 참조.

27) 若生, 〈爲建設“大衆語文”的問題〉, 文逸 編, 《語文論戰的現段階》 71쪽에서 재인용.

28) 華園, 〈門外文談〉, 《魯迅全集》 6卷, 人民文學出版社, 1989. 101쪽 참조.

성과들을 선별적으로 계승하여 토대로 삼는 것을 한시적으로나마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2) 백화문과 차별화 : 사명과 목표

5·4 백화문과 신문화 운동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새로운 어문체계의 탄생은 새로운 사회문화적 요구와 긴밀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문체는 새로운 의식의 전파를 가능하게 해주며, 새로운 의식의 확립은 새로운 문체의 확립을 담보해 준다.

대중어문 운동은 역대로 어문 활동에서 소외되어 왔던 대중들이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어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화 변혁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백화문 운동과 대중어문 운동의 사명과 목표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

7월 14일 聞心이 《新生周刊》에 발표한 〈大衆語運動的幾個問題〉라는 글을 통해 대중어문 운동이 5·4 백화문의 연장이나 개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대중어문 운동이 사회문화 변혁과 어문 개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사회문화 투쟁과 연계하는 동시에 문언잔당의 봉건의식과 백화문의 기생성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어문 건설 문제를) 절대로 '문언문 부흥 운동'에 대한 일종의 '반동'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것은 사실상 대중의 문화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투쟁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이 투쟁을 백화문과 문언문의 논전으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이 투쟁의 의의를 어문 자체에서만 찾으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대중어문 운동은 한편으로는 진부한 언어문자형식과 그것에 기탁된 사회의식을 타파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새로운 언어문자도구를 이용하여 진보적 문화의식을 대중 속에 전파해야 한다. 따라서 이 운동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주요 임무를 안고 있다. 한 가지는 대중의 교육을 위해 투쟁하여, 대중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어문을 대중들이 지식을 흡수하고 의견을 발표하기 편리한 도구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중국문화를 개조하고 군중들에게 만연한 노예의식과 제국주의 문화의 영향 및 각종 기생적인 이데올로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²⁹⁾

靑瑤도 7월 18일 《大晚報·火炬》에 〈爲“大衆語問題批評”-致司馬疵王剛及其他白話改良主義者們〉를 발표하여 “반복고운동과 반문언문 투쟁 중에 백화문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王剛의 주장은 대중어문 운동을 단지 어문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그것의 사회문화적 의의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대중어문 운동 안에 사회기구의 변혁 및 그 이데올로기의 반영 작용이 담겨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중략) 이것은 언어나 문자의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사회의식의 변혁으로, 언어와 문자에 반영된 ‘문화혁명’ 행위이다. 따라서 대중어문 운동은 司馬疵와 王剛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반복고운동’이 아니라 대중이 자신의 계급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의 의식을 대표하는 언어와 문자를 요구하는 해방투쟁이다. 司馬疵와 王剛은 대중어문 문제를 일종의 자연발생적인 운동으로 간주하고 그것의 목적의식성을 홀시하고 있다.(……중략) 이처럼 司馬疵는 대중어문을 백화문을 수정한 결과 자연 발생하는 언어문자로 해석했다. 그렇게 되면 대중어문은 그것의 계급성과 전투성과 자의식성을 잃어버리고 ‘개량 백화문’의 임무만 완수할 수 있을 뿐이다.(……중략) 司馬疵와 王剛은 “대중어문을 건설하는 것이 백화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론이 대중어문 운동에 적지 않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오히려 그것은 대중어문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장애와 독소를 초래했다.³⁰⁾

이처럼 대중어문 운동이 제기된 것은 문언문과 백화문의 문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대중’이라는 새로운 계급의 등장과 위상 정립 요구 때문이기도 했다. 즉 그것은 봉건적이고 복고적인 문화에 맞서 대중이 주체가 되는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와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었다. 따라서 대중어문 운동은 5·4 백화문 운동처럼 부르주아 계급의 반봉건 문화투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중이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요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대중어문과 백화문은 상호 연대하면서도 대립적일 수밖에 없었다.

29) 聞心, 〈大衆語運動의幾個問題〉, 《新生周刊》第1卷 第23~25期, 1934년 7월 14, 21, 28일.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78쪽.

30) 靑瑤, 〈爲“大衆語問題批評”-致司馬疵王剛及其他白話改良主義者們〉,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68~270쪽.

3) 백화문과의 관계 : 지양과 조정

① 대중어문의 원천 문제

대중어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백화문의 퇴행적인 부분들은 청산하고 진보적 성과들은 흡수하는 지양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양과 조정의 결과가 5·4 이래의 백화문보다 더 대중적인 백화문으로 귀결되는 것이었다면 대중어문 운동을 제창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중어문의 제창이 아니라 백화문의 대중화를 통해서도 이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어문 운동이 나름의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양과 조정의 결과가 반드시 대중화된 백화문이 아니라 그것과 질적으로 차별화된 어문체계인 대중어문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실 5·4 이래로 백화문은 대중들과 오래도록 접촉해 왔고, 대중들과 가까운 부분이 적지 않았지만, 대중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약점은 부분적인 개선이나 수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서구화되고 문언화된 어법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외래어와 토속어 및 방언 어휘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최대한 대중들의 필요에 부합해 나가는 것”³¹⁾과 같은 지양과 조정은 대중어문을 건설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자 수단으로 간주되어야지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해 “백화문이 대중에게 다가가는 부분의 양적인 증가에서 질적인 전환으로 나가는 것, 즉 대중어문으로 전환하는 것은 백화문 자신의 개선이나 발전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었다.”³²⁾ 이러한 의미에서 백화문은 대중어문과 연대하면서도 대립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대중어문의 건립과 함께 5·4 이래로 담당해오던 진보적인 역할을 대중어문에게 넘겨주고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백화문의 지양과 조정을 통한 대중어문의 건설 방법과 관련하여 高荒(胡風)은 7월 21일 《中華日報·動向》에 발표한 〈“白話”和“大衆語”的界限〉에서 백화문은 나름의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대중어문은 백화문과 서로 통하는 요소를 늘려나가는 한편 더욱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백화문을 정복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쟁취해 나가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 文逸 編, 《語文論戰的現段階》, 74쪽.

32) 文逸 編, 《語文論戰的現段階》, 74쪽.

어록체나 반문반백의 혼합체는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하지만 문장 구법의 서구화, 새로운 단어의 수입, 문언 어휘의 비판적 채용 등은 일괄적으로 반대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비록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번역, 논문, 넓은 지역에 발행되는 신문이나 결의 등은 이러한 백화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또한 학생, 지식인, 점원, 소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예작품에서는 이러한 백화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중략) 이러한 백화문은 비록 대중들이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렵겠지만 모두가 간접적으로는 대중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백화문은 대중들의 반제반봉건 국민경제 개조의 발전과 승리에 따라 한편으로는 조금씩 대중어문에 의해 정복되어 대중어문의 원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대중어문에 의해 충실해지고 지양되어 높은 수준의 대중어문의 모체가 될 수 있다.³³⁾

그런데 백화문에 대한 지양과 조정을 통해 대중어문이라는 새로운 어문체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백화문이 대중어문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 대중어문은 분명 백화문의 진보적 성과 위에서 건설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대중들의 말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대중들의 실제 생활과 거리가 먼 백화문의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들의 살아있는 구두어와 새로운 생활상의 수요 위에서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중어문은 백화문의 진보적 성과와 대중들의 생활 수요라는 양대 원천의 변증법적 결합을 통해 건설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백화문의 양적 개선이나 발전에 따른 대중화된 백화문이 아니라 백화문의 질적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어문체계여야만 했다.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는 7월 29일 胡適이 《大公報·文藝副刊》에 발표한 〈大衆語在那兒〉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중어문은 백화문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다.

대중어문은 백화문 이외의 특별한 문장이 아니다. 대중어문은 일종의 기술이고 재주이다. 백화문을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솜씨에 불과하다.³⁴⁾

33) 高荒, 〈“白話”和“大衆語”的界限〉, 《中華日報·動向》1934년 7월 21일. 文逸 編, 《語文論戰的現段階》, 75~76쪽에서 재인용.

34) 胡適, 〈大衆語在那兒〉, 《大公報·文藝副刊》第100號, 1934년 7월 29일. 김민정,

② 대중어문의 표기 문제

대중어문 운동의 목표 중의 하나는 5·4 백화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들의 살아있는 구두어에 기초해 언문이 일치하는 새로운 문체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문체개혁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5·4 백화문의 한계는 근원적으로 한자라는 문자 체계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어문 운동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4 백화문의 문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그것의 서사부호인 한자를 개혁하거나 병음문자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때문에 대중어문 운동 초기부터 여러 논자들에 의해 한자개혁과 새로운 병음문자 방안의 채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³⁵⁾

이러한 맥락에서 葉籟士는 8월 11일 《中華日報·動向增刊》에 발표한 〈一個拉丁化論者對於漢字拜物主義者的駁斥〉이라는 글을 통해 백화문의 개혁은 백화문 내부의 문제이지 대중어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리고 대중어문은 대중의 선진적인 의식을 대표하는 백화문이 아니다. 그것의 문장 의식은 대중적일 수 있지만 문장 자체는 대중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어문 운동은 백화문의 개혁이 아니라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채용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어문의 건립은 라틴화 문제와 연계해서 제기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결과를 얻을 수 없다.(……중략) 라틴화론자들은 한자의 변혁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한자는 수 천 년 동안 대중을 문화와 격리시킨 만리장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를 확실하게 폐지해야지만 대중어문의 건립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당면한 현 단계 어문혁명의 특징이다.³⁶⁾

당시 대중어문 운동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지식인들은 라틴화 신문자의 채용보다는 백화문의 개혁을 선호하고 있었다.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일

〈1934년의 ‘대중어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8. 93~94쪽에서 재인용.

35) 拙稿, 〈대중어문 운동과 라틴화 신문자 방안〉, 124쪽.

36) 葉籟士, 〈一個拉丁化論者對於漢字拜物主義者的駁斥〉, 《中華日報·動向增刊》, 1934년 8월 11일.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時代出版社, 1949년판 영인), 《民國叢書》編輯委員會 編, 《民國叢書》第二編 52, 上海, 上海書店, 1989. 91쪽.

상적인 문자 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두어만 있고 문자는 없는 문맹 대중들의 사정은 달랐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구두어를 간편하게 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 방안이 필요했다.”³⁷⁾ 바로 이 때문에 대중어문 운동은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채용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문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문자의 병음화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자의 병음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어문의 대중화가 필요했다.³⁸⁾ 따라서 백화문의 개선과 발전에 따른 백화문의 대중화 문제와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채용 문제는 상호 간의 전제이자 결과로서 반드시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서 검토되어야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백화문의 개혁은 백화문 내부의 문제이지 대중어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대중어문의 양대 원천 중의 하나인 백화문의 진보적 성과들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어문 운동의 궁극적 목표 중의 하나인 한자폐지와 병음문자 채용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

이 때문에 8월 13일 黃賓은 《中華日報·星期專論》에 발표한 〈關於白話文與文言文的論爭的意見〉이라는 글을 통해 대중어문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전까지는 백화문을 구어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작업과 대중어문을 건설하는 작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조건 백화문을 부정하는 것은 당면한 어문 현실을 도외시한 관념적인 구호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쟁에서 가장 격렬하고 가장 많이 다루어진 문제는 바로 백화문을 반대해야 하는가이다.(……중략) ‘대중어문’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전에는 사실상 한편으로는 백화문을 구어에 부합하도록 만들고, 한편으로는 대중어문 건설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중략) 따라서 무조건 백화문을 반대하거나 옹호하는 주장들은 모두 객관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헛소리이다. 백화문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무조건적인 반대와 옹호가 아니라 대중어문 건설에 노력하여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³⁹⁾

한편 8월 16일 孔另境은 《新中華雜誌》에 발표한 〈大衆語文建設之理論與實際〉

37) 拙稿, 〈대중어문 운동과 라틴화 신문자 방안〉, 129쪽.

38) 拙稿, 〈대중어문 운동과 라틴화 신문자 방안〉, 128쪽 참조.

39) 黃賓, 〈關於白話文與文言文的論爭的意見〉, 《中華日報·星期專論》, 1934년 8월 13일.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330쪽.

라는 글을 통해 먼저 국어교육의 제도화, 주음자모의 반포, 신식 표점부호의 사용, 백화문학의 흥성 등을 5·4 백화문 운동의 대표적 성과로 꼽은 후, 이것들이 대중어문을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이자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말처럼 명확해야 한다(明白如話)’는 5·4 백화문 운동의 목표를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5·4 백화문을 개선시켜 말과 문장이 완전히 일치하는 대중어문을 건설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현재의 대중어문은 결코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백화문의 개선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건립해야 할 것은 편협한 대중어문학이 아니라 대중어와 대중문, 양자가 합일된 대중어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백화를 개선하여 그것이 대중어문이 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⁴⁰⁾

그리고 이와 함께 대중어와 대중문이 합일된 대중어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자 체계를 주음자모나 라틴화 신문자 방안과 같은 병음문자 체계로 개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문자는 형의자여서 전혀 글자를 모르는 이에게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말과 문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제거하지 않고 진정한 대중어문의 합일을 완성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중략) 근본적인 방법은 현재의 중국 형의자를 병음자로 개조하는 것이다.⁴¹⁾

이처럼 백화문의 지양과 조정에 대한 생각은 대중어문에 대한 기본 인식에 따라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논의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대중어문 운동의 결과가 백화문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어문체계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5·4 백화문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과 함께 기존의 문자 체계를 병음문자 체계로 대체하는 작업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

40) 孔另境, 〈大衆語文建設之理論與實際〉, 《新中華雜誌》第2卷 第18期, 1934년 8월 16일.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351쪽.

41) 孔另境, 〈大衆語文建設之理論與實際〉,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354쪽.

Ⅲ. 나오는 글

대중어문과 백화문의 관계와 위상 정립을 둘러싼 논쟁은 양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문화 변혁에 대한 인식에 따라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대립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먼저 원칙과 입장 문제에 대해서는 문언문과 대중어문은 절대적 대립 관계이지만 백화문과 대중어문은 대립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관계라는 데 대체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주체와 목표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가 계급성과 사명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립적이지만 백화문도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제고시켜왔으며, 무산계급의 가치와 이념을 전파하는 유력한 도구로 기능해왔기 때문에 상호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지양과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어문 운동이 백화문의 대중화가 아니라 백화문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문체계의 확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경향들이 병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백화문에 대한 명확한 찬성과 반대는 주로 기본 입장과 원칙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이러한 입장과 원칙들은 백화문의 한계와 성과를 제대로 구분하고 공과를 두루 고려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그중의 일면에 기초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찬성론의 경우에는 대중어문이 아직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화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거나, 봉건 복고 기도는 문언문이나 백화문, 그리고 대중어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거나, 대중어문은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문체이며, 대중어문의 사용 주체는 대중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지식인이므로 백화문의 개선과 발전에 치중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반대론의 경우에는 5·4 시기와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백화문이 아니라 새로운 대중어문이 필요하다거나, 백화문은 부르주아 계급의 가치관을 구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계급성과 가치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중어문이 필요하다거나, 대중어문은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문체계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찬반양론의 입장과 원칙들은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자칫 백화문과 대중어문의 관계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대립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대중어문은 당장에 백화문을 대체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어문체계가 아니라 일부 도시와 노동 현장에서 성장 중이고 앞으로 건립해 나가야 하는 어문체계였다. 이러한 점에서 과도한 오해와 대립은 대중어문을 건립해 나가는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서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거나 추진 방향을 오도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는 문언문 부흥과 봉건 복고문화를 기도하는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樂嗣炳의 회고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애초 대중어문 운동은 5·4 백화문 운동의 연속으로서 그것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 다만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문언문 부흥 세력에 직접 대항하기 보다는 5·4 이후 입장을 바꾼 호적, 주작인, 입어당 등의 백화에 문언을 섞어 쓰자는 주장을 비판하는 전술을 택했던 것이다.⁴²⁾ 따라서 대중어문과 백화문의 관계 설정과 백화문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조성되었던 대립 양상은 점차 양자는 '대립과 통일'의 관계에 있으며, 대중어문은 백화문의 전면 부정이 아니라 그것의 '지양과 조정'을 통해 건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백화문이 거둔 성과는 대중어문의 출발점이자 든든한 기초라는 공감대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양하고, 계승하고, 조정해서 대중어문을 건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당시 5·4 이래의 백화문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거둔 성과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대중어문은 백화문의 퇴행과 한계에 대한 철저한 지양과 진보적 성과에 대한 비판적 계승, 그리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의 조정을 통해 건립해 나가야 했다. 이에 대중어문 운동은 백화문의 원천을 당대의 살아있는 구어가 아니라 明清 소설 중의 낡은 백화문에서 찾는 언어관과 새로운 대중문화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보수 세력의 반동적인 문화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소위 '新文言'과 '洋八股'로 전락해버린 백화문의 퇴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양을 천명했다. 반면에 백화문을 정통의 지위로 격상시킨 5·4 백화문의 문장관, 언문일치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 중인 백화문의 문체, 반제반봉건 정신, 과학과 민주주의 및 미학의 가치를 추구하는 백화문학의 의식은 비판적으로 계승할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대중들의 살아있는 구어에 기초하여 대중들의 요구에 부

42) 〈樂嗣炳談“大衆語”運動和魯迅先生〉, 《魯迅研究資料9》, 天津人民出版社, 1982. 209~210 쪽 참조.

합하고, 대중들의 생활과 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대중어문을 건설해 나가고자 했다.

한편 대중어문이 백화문의 지양과 조정을 통해 건설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대중화된 백화문이 아니라 그것과 질적으로 차별화된 어문체계인 대중어문으로 귀결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중어문을 문언 부흥과 봉건 복고 시도에 대해 달라진 사회문화 환경에 맞게 새로운 전술로 대응하기 위해 백화문의 대타로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문언 부흥과 봉건 복고 시도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백화문의 퇴행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문체계로서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는지, 대중어문의 사용 주체를 지식인으로 보는지 대중으로 보는지, 대중어문의 문자 표기를 한자로 할 것인지 병음문자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 대중어문의 실체는 대중화된 백화문의 모습을 취할 때도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어문체계의 모습을 취할 때도 있었다. 이 때문에 대중어문을 건설해 나가는 실천 과정에서 백화문의 양적 개선과 발전에 치중하는 이들과 백화문의 질적 전환에 치중하는 이들이 병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어문 운동이 백화문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어문체계, 즉 대중들의 살아있는 구두어를 언문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병음문자로 서면화한 것으로서, 대중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대중들의 의식을 대표하고, 대중들이 주도적으로 반봉건·반복고 사회문화 투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문체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5·4 백화문 운동의 진보적 성과들을 비판적이고 선별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대중들이 자신의 언어와 생활과 의식을 표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한자를 병음문자 체계로 대체하는 문자개혁을 병행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參考文獻】

- 任重 編, 《文言, 白話, 大衆話論戰集》(民衆讀物出版社, 1934년판 영인), 《民國叢書》編輯委員會 編, 《民國叢書》第一編 52, 上海書店, 1989.
- 文逸 編, 《語文論戰的現段階》(天馬書店, 1934년판 영인), 《民國叢書》編輯委員會 編, 《民國叢書》第一編 52, 上海書店, 1989.
-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時代出版社, 1949년판 영인), 《民國叢書》編輯委員會 編, 《民國叢書》第二編 52, 上海書店, 1989.
-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上海文藝出版社, 1987.
- 樂嗣炳, 〈樂嗣炳談“大衆語”運動和魯迅先生〉, 《魯迅研究資料9》, 天津人民出版社, 1982.
- 김민정, 〈1934년의 ‘대중어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8.
- 임춘성, 《중국 현대문학 전기의 대중화론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박사학위논문, 1993.
- 천성림, 〈신생활운동의 성격-전통사상을 중심으로〉, 중국사학회 편, 《中國史研究》Vol No.1, 2000.
- 拙稿, 〈魯迅의 한자 개혁론과 ‘大衆語’ 기획〉, 《中國文學研究》第33輯, 韓國中文學會, 2006. 12.
- 拙稿, 〈대중어문 운동과 라틴화 신문자 방안〉, 《中國文學研究》第51輯, 韓國中文學會, 2013. 6.

【中文提要】

大衆語文運動具有與五四白話文運動顯然不同的社會文化背景和目標。可是, 大衆語文不是現有的語文體系, 因此, 它不得不一方面揚棄五四白話文運動的限制, 另一方面還要繼承它的成就。與此同時, 它要通過這些過程加強自己的基礎和推動力, 而且按照語文一致的原則建立與白話文顯然不同的語文體系, 從而使大衆能夠表現自己的語言和生活以及思想。因此, 在推進大衆語文運動的過程中, 圍繞對五四白話文運動的評價、大衆語文與白話文有什麼區別以及怎樣處理兩者的關係等的問題進行了激烈的討論。總而言之, 通過這一系

列的討論大眾語文運動的原則和觀點以及目標越來越明確了。那就是，第一，必須把大眾的口頭語用拼音文字書寫。第二，大眾語文是“說得出、聽得懂、看得明白、寫得順手”的語文。第三，一定要建立可以代表大眾的進步思想，而且大眾能夠作出主導作用的語文體系。

【主題語】

大眾語文運動, 白話文, 文體改革, 文字改革, 文化變革

Mass Language Movement, colloquial Chinese, style revolution, character revolution, culture revolution

투고일: 2014. 4. 15 / 심사일: 2014. 4. 20~5. 5 / 게재확정일: 2014. 5. 10